광주시, 시민참여 플랫폼 '딜레마'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시스템 무상 지원"
6월 지방선거, 의회 고유기능 침해 소지 걸림돌
시민참여예산 불시착 "선거공약화가 더 합리적"

한국의 민주·인권·평화도시를 꿈꾸는 광주시와 시민참여형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연 스페인 마드리드가 시민참여 플랫폼 공유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와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데다 의회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우려돼 성급한 추진보다는 시민 공감대를 토대로 선거공약화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에 시민들의 직접 또는 개별적인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시민참여 모델 개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매도시 간 우호·교류 차원의 협약이나 결연은 간혹 있었으나 해외도시의 특정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책적 협약을 맺는 것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시스템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마드리드시는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정책과 실제 운영 사례 등을 광주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만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라도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 등에게 질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는 무려 35만 명에 이른다. 마드리드시는 올해 시민참여 예산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3%인 1억 유로(한화 1344억원)를 편성했다.

전체 시민 1%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한 뒤 토론에 부쳐지고, 찬반투표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9월 14~17일 광주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초청돼 직접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발표됐고, 이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의 협약 체결 제안에 마드리드시 측이 "프로그램 소스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벤치마킹이 현실화됐다.

이후 3개월 가량 실무진 간담회와 e메일 교환, 관련 부서 협업회의 등이 이뤄졌고, 스페인 현지 현장답사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당장 차기 시장을 뽑기 위한 지방선거가 12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신규 시책을 가공없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선거용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도 낳을 수 있다. 올해 별도 책정된 예산도 없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직접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는 의회의 권한 축소나 고유기능 침해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민참여 예산제'가 겉돌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분과위원회까지 둬 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 편성된 40건 가운데 18건은 전액 삭감됐고 3건은 일부만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당초 편성된 55건 110억원 중 26건 54억7600만원만 반영돼 반토막났고, 그 보다 앞선 2016년에도 무더기 삭감된 뒤 예결위에서 부활됐다.

중복성과 실효성, 선심성, 타당성, 시급성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줄줄이 삭감됐다.

불시착한 자체 시민참여 프로그램부터 안정화시킨 뒤 해외 선례를 접목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예산도, 시민공감대도, 시스템 검증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보다는 차기 시장이 키를 쥐고 결정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디사이드 마드리드의 사례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일단 협약수준에서 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며 "이와 별개로 시민총회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출하 기다리는 설명절 성수품목 과일 설을 앞둔 5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공판장에는 설명절 성수품목 과일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5개 은행 채용비리 수사…금감원서 자료 송부

대검찰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5곳의 채용비리 관련 참고자료를 넘겨 받아 5일 각 지역의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이날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시중은행 2곳과 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JB광주은행 지방은행 3곳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금감원에서 접수 받아 서울과 지방의 5개 지검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수사 참고자료는 서울남부지검에, 하나은행 자료는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대구·부산·광주은행의 자료는 대구·부산·광주지검에 각각 보냈다. 검찰은 금감원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채용비리 혐의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은행 5곳의 채용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채용비리 사례는 모두 22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13건, 국민은행이 3건, 대구은행이 3건, 부산은행이 2건, 광주은행이 1건이다.

이중 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의 조카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윤 회장의 조카는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에서 가장 많은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적발됐다. 사외이사 관련자,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 자녀 등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의혹이 6건, 특정 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의혹 등 7건이다.

대구은행은 2016년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3명의 지원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간이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시켰고, 부산은행은 전 국회의원 딸 2명을 특혜 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부행장이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친父女, 근친상간죄로 기소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생물학적 딸과 아이를 낳고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근친상간죄로 기소됐다고 폭스 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븐 프래들이라는 42살의 이 남성은 22세 때인 1998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 케이티(20)를 낳았지만 곧 입양을 보냈다.

그러나 케이티는 2016년 18살 성인이 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친부모를 찾았다. 스티븐과 여자친구는 그 사이 정식으로 결혼해 다른 두 딸을 낳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케이티는 친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던 중 친부 스티븐과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이 때문에 케이티의 친부모는 2016년 11월 별거를 시작했다.

케이티의 친모는 둘 사이를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 스티븐이 케이티와 다른 두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3개월 뒤인 6월 이혼했다. 친모는 지난해 5월 케이티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케이티는 지난해 9월 아들을 낳았고 스티븐은 케이티와 메릴랜드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했다. 스티븐은 케이티의 여동생 2명에게 케이티를 새 엄마라고 부르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과 케이티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해 11월 발부됐으며 이들은 지난 27일 체포됐다. 이들 부녀는 근친상간이 금지된 버지니아주에서 기소됐으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티븐은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케이티는 여전히 구속돼 있다.

케이티의 친모는 스티븐이 케이티를 세뇌시켜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테러 용의자, 벨기에법원서 재판 시작

130명의 사망자를 낳은 2015년 프랑스 파리테러의 생존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28)에 대한 재판이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벨기에 법원에서 진행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압데슬람은 이날부터 수감된 파리 외곽의 교도소에서 벨기에 법원까지 수백명의 벨기에 보안군의 삼엄한 경비 하에 호송된다. 재판이 끝난 뒤 밤에는 다시 프랑스 국경을 넘어 교도소로 향한다.

프랑스와 벨기에 군은 프랑스 교도소에서 벨기에 법원까지 압데슬람을 호송하는 공동 책임을 맡는다. 육로와 항공로 등 호송 경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안군은 압데슬람이 자살시도를 하거나 동료 조직원이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3월22일 브뤼셀의 EU 본부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테러로 3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는 압데슬람의 조직원들이 벌인 테러로 파악됐다.

압데슬람의 이번 재판은 파리 테러가 아닌 지난 2016년 3월1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총격전을 벌인 혐의로 열린다. 이 사건으로 벨기에 경찰 3명이 부상을 입고 테러를 공모한 테러리스트 한 명이 사망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0년형을 받게 된다.

일본 동해 연안에 폭설 최대 1m71cm

일본 기상청은 5일 발달한 저기압과 공중의 한기 여파로 북일본에서 서일본에 이르는 동해 연안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고 NHK 등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6일까지 동해 연안에 일대에 많은 눈이 쏟아진다며 도로면 동결과 교통 장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홋카이도 서해 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이 정체하고 서일본 상공 1500m에 예년보다 10도 안팎 낮은 영하 12도 이하의 한기가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한파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며 저온에 의한 수도관 파열 등도 우려된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오전 8시 시점에 강설량은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정(町)에는 1m71cm, 이시카와(石川)현 하쿠산(白山)시 96cm 등으로 예년의 두 배나 되는 눈이 쌓였다.

후쿠이(福井)시도 58cm, 돗토리(鳥取)시 32cm, 도야마(富山)시 23cm, 가나자와(金澤)시 17cm에 달했다.

서일본의 동해 연안과 호쿠리쿠(北陸)에서는 앞으로도 눈이 계속 내리면서 넓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